

buddhanews.com

끝없이! 끝없이, 함이 없이 모두 하고들 가세요!

25면에서 계속

그대로 끝없는 거죠. 끝없는 그 까닭에 바로 교차로가 아닌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서 즉, 차원이 높아지느냐 더 낮아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생활이 주어지죠. 삶이 주어진다 말입니다.

질문자(2남) 마지막으로 스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KAL기가 떨어진 콤팩트 카메라, 또 KAL기는 아니지만 비행기 추락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은 캄보디아라는 곳이 과거 일제 시대 때 정신대 할머니들이 많이 끌려갔던 곳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원을 방황하고 있는 원혼들이, 바로 그분들이 거기에 끌려가셨다는 것을 보이더라도 하듯이 연이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할머니들은 바로 스님 연배의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스님이 마음을 내셔서 구원을 방황하고 있는 원혼들을 제도해 주시고, 현재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진상규명과 법적배상이 조속히 그리고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님께서 원력을 좀 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만약에 그 죽은 사람들이 과거에 끌고 간 놈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항상 돌아오. 부처님이 앉아 계시면서 그것은 해결을 할 수가 없죠. 왜냐? 그건 한 번 재판을 받아서 그렇게 됐으면 그 이미지는 없앨 수가 없으니까 다시금 돌려서 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죽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고 하는데 이 이유는 50% 정신계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한번 그렇게 바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 끌려간 놈이나 끌고 간 놈이 있다면, 끌려간 놈은 끌고 가는 놈이 되고 끌고 간 놈은 끌려가는 놈이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게 인연이요. 그런 것을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선 '왜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질문자(2남) 예. 한 가지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그 정신대 할머니들은 그런 고통을 어느 정도 종교적인 결로라도 많이 승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인연을 맺은 끌고 간 사람들, 사실은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영혼의 구제가 미처아 되지 않겠는가. 당장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어떤 인연된 한 마음 공동체라면...

스님 말로만 종교를 믿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씀을 하셔도 이 정신계의 공부가 없어서 정신계의 뜻이 거기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벗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머리를 짚으시며) 인력이 돼 있거든요. 그럼 현실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인력을 없애려면 거기가 다시 인력을 해야 앞서 입력된 게 없어야죠? 그런데 그 인력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모두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

과로 인해서 업이 될 때에는... 누구나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나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신계의 50%를 같이 보라 이러는 거죠.

우리 신도님들 중에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신도님의 일가, 신도님들의 형제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 사고가 나니까 이 형제분이 오시는 거예요. 와서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래도 전깃줄이 닿아야 어떻게 전기가 들어오게 하죠. 그렇건만도 그 인연으로 인해서 부처님께선 가끔 연기법으로써 그걸 해결을 하시죠. 하여튼 생각을 잘하고 잘 살아요. 열심히 한번 해봐요. 그렇다면 종교가 따로따로 있는 것도 아닌 거를 알게 돼요.

치지도 않겠지만 반 이상이, 즉 남의 땅으로 돼 있거든. 안 그래요?

질문자(3남) 지금 현재 공동묘지로 돼 있습니다.

스님 그래. 그리고 자기 집이 아니지. 그것은 오만큼 그저 셋방살이이지 그제 자기 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모두 셋방살이야. 셋방살이. 허허허... 그런데 만약에 조상들 영령을 건져서 탑에다 모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데 님이 마음에서 좋으니까 영령들의 마음도 좋고, 그 영령들의 마음이 좋으니까 님도 좋게 되는 거지. 한 영주알이니까. 부모들은 자식이 사 준 집에서 사는데 자식은 셋방을 산다 이렇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소? 어떠한 마음이라도

그랬느냐고요? (대중 웃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 되기 어렵고, 부처 되기는 더욱 어렵고, 진짜 부처가 돼서 평등공법으로 삶을 살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거를 그렇게 해 보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애를 쓰면 병고예요. 또 허허허... 애를 쓰지 않아도 안 되고 애를 너무 써도 안 된단 얘기고. 그대로 자기 생긴 대로, 그대로 자기 모습대로, 또 분수대로 다 살면서 (가슴을 짚으시며) '오직, 그놈이 이렇게 움직여라 하는구나!' 하는 거, 그것을 진짜로 아신다면 그저 급할 때 어떤 거든지 다 거기다 넣으면 바로 화해서, 탄 겉로 변해서 현실로 나오게 돼 있어요. 바로 우리 생활 자체가 심성과학이니까요.

자불이 주인공이니까 그냥 주인공에 다 놔 버리고 편하게 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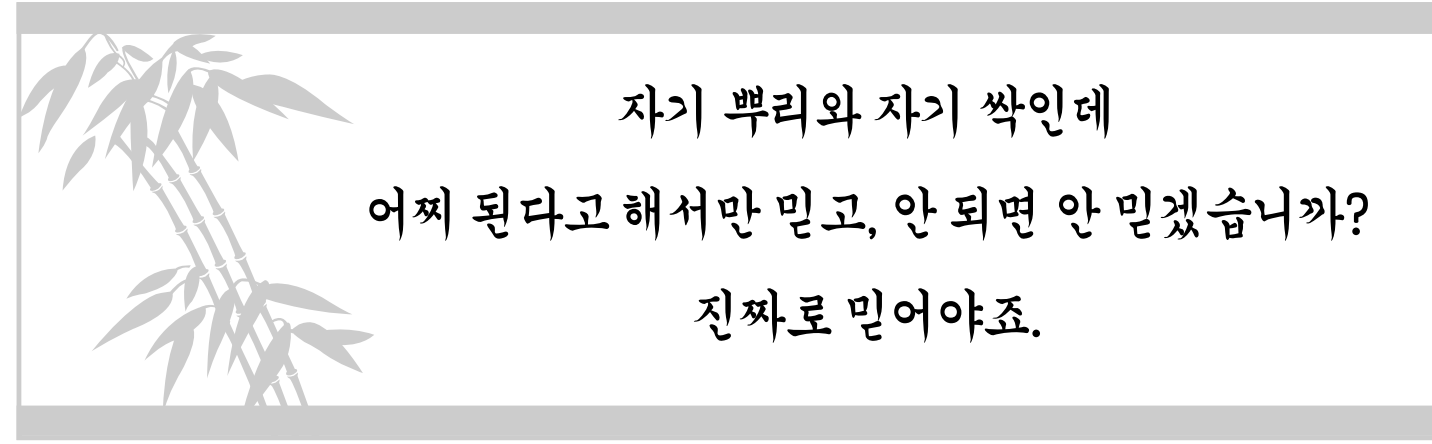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니까 암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암에 걸렸다고 의사들이 그러면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두. 그래가지곤 의사한테 매달리는데, 그게 바깥으로 꼬달리는 거죠. 의사한테 100% 다 그냥 매달리고 비비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인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받은 분담을 해서 의사 반, 나의 마음 반, 이것이 돼야 됩니다. 자기 뿌리만이 자기 싹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의사가 자부처의 인연으로 만난 거니까 그것도 또 딴 손이 아니죠.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주인공은 뭐 하는 주인공이야? 주인공 이름을 불러도 뭐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요. 글썄. 그러니까 자기가 색깔을 보면 자기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색깔을 보지도 않고 자기가 없다는 거죠. 그럼 못 믿는 것도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거지, 그게 뭐니까?

자기 자신(自神)이라 하는 게 있어요. 자신! 자신이 어려서부터 쪽 형성돼서 나올 때까지, 왜 삼신할머니라고 그러죠? 그 이름을 삼신할머니라고 불렀으니까 그렇지 '자불'이예요. 자불이 그렇게 길러서 백일 때까지 그 과정을 모르게 딱 정돈해 놓은 그때부터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을 배우게 만들죠. 자불이 수없이 겪어 오면서 자기를 형성시키고 또 진화시키고 이래서 인간까지 올려놓았는데도 그게 없다는 거죠. 무슨 소용이 있는냐는 거죠.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며)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주 자기의 근본 자불이죠. 자불! 그 자불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앉아 있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송장이나가죠.

지루하시죠? 허허허... (합장하시며)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만나십시오. 나는 말이에요, 아휴, 할 말을 못 하고 말이에요. 말은 했는데 그 속의 뜻을 전달하지 못해서 해도 한 것이 아니고... 아이구 참 내! 허허허... (대중 웃음) 아이구 참!

아까, 비행기 사고로 왜 죽었느냐? 스님은 그러지 않게 할 수 없겠느냐. 왜 죽었느냐, 왜 죽느냐, 왜 자꾸 일이 생기느냐, 벌어지느냐 하는데요. 그 이유가 없다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하나가 모두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말을 했다가... 허허허... 그냥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좋게 한다거나 또 여러분을 아프지 않게 한다든가, 여러분을 좀 살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말없이도 할 수 있는 거지마는 그런 질문의 대답은 참, 어려운 거죠.

※위 법문은 1997년 9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 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 뿌리와 자기 싹인데 어찌 된다고 해서만 믿고, 안 되면 안 믿겠습니까? 진짜로 믿어야죠.

질문자(3남) 스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지원의 선근회에서 왔습니다. 이번이 제가 영탑공원에 조상님들을 모시는 문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조상님들은 지금 부여에 있는 공동산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있어서 천도재를 선원에서 여러 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천도재 한 부분과 공동산에 모셔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자신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네가 지금 전세 사는 거와 같으니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비록 전세는 살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지녀서 참 중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2년마다 자금을 마련하는 등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재는 했다고 하나 그런 것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탑으로 모실 마음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지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많이 반대를 하시고 일반 산에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스님께서 설법하실 때 '육신은 두기도 혼을 전부 들어서 탐으로 모실 수도 있느니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스님 왜냐하면 거기가 3분의 1 조금은, 그건 뭐

내서 좋은 일이 되게끔 해 주실 거요. 나는 죽은 사람 따로 치고 산 사람 따로 치지 않아요.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스님. 그런데 지금 저의 현실에서는 5대조부터 전부가 다 계시기 때문에 집안 친지분들이 모두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 영탑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를 못하시죠. 제가 마음도 많이 내면서 하지마는 흐름이 같이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스님 그것은 다 그냥 놔두고요. 위패를 써서 다라니에 써서 영령들만 모시면요, 거긴 빈터가 돼 버려요. 육신은 사대(四丈)로 다 가잡아야? 온기를 좇아서 가고 물로 좇아서 가고 흙으로 좇아서 가고 바람으로 좇아서 가는 거 아니예요? 흙속이라고 바람이 없는 줄 아세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다 썩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잘 하시고 팔자 좋게 사세요. 허허허... (대중 웃음, 박수)

- 사회자 끝났습니다.
- 스님 어떻게 이렇게... 그럼 내가 아까 그 얘기 길게 하지 않았으면... 질문할 분이 두 분밖에 없었어?
- 사회자 세 분...
- 스님 그런데 한 분...
- 사회자 세 분 했습니다.
- 스님 그것만 하고는 나더러 내려가라고 그러려

과학이 따로 있는 줄 아세요? 무슨 물질과학 정신과학 이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리가 바로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성과학이예요. 과학 아닌 게 하나라도 있나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묘하게, 이게 보면 저거 보게 되고, 어떻게 묘한지 이 말 하곤 또 오 말 하고, 아버지 노릇 잘하고 남편 노릇 잘하고, 자식 노릇 잘하고 사위 노릇 잘하고, 형 노릇 잘하고 아우 노릇 잘하면서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이것이 심성과학이 뭐니까? 모두가 과학 아닌 게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버를 심어서 추수해서 까서 밥해 먹는 거 보셨죠? 허허허... 못 보셨습니까, 모두? 그것이 다 과학이예요. 과학 아닌 게 어디 있었어요? 물질과학으로 지구 하려니까 과학 과학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과학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물컵을 짚어 보이시며) 이 구멍이 한 텀구멍이라면, 이 텀구멍 하나가 만약에 자불(自佛)이라면 이 세상을 다 날려도 남음이 있다 이런 소립니다. 텀구멍 하나에, 그리고 모든 것을 여기다 집중해서 다, 그저 생기면 여기다 넣고 생기면 여기다 넣고, 그러면 불을 꺼 놓고 집착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면 별도 없고 생사도 없고 다 없는 거죠. 뭐, 그냥 모두 한 텀구멍에 다 넣어 버리는 거와 같이 바로 자기 자불에,

소리의 세상

세상을 떠나 세상의 소리를 풀어내다

송광사에서 10여 년 동안 수행의 한 방편으로 수련회를 이끌었고 거금도 섬으로 들어간 뒤 풍문으로 혹은 신문기사로 접하던 스님의 그간 이야기

일선 스님
일찌기 의문을 품고 조계산 송광사에서 범종 화상을 은사로 득도 중앙승가대학 졸업, 봉암사를 비롯 제방선원에서 정진 송광사에서 10여 년간 수련회를 이끌었으며 거금도에서 안거 정진 중 금천선원 선원장

스님이 세상에 『소리』를 내 보임은
썩빛 하늘 같이 푸른 바다를 벗 삼아
텅 빈 가슴으로 욕심 없이 보낸 세월의 흔적을
홀로 간직하기엔 너무나 큰 아쉬움이
절절히 사무치겠다 싶어서였지요.

“한동안忍苦의 세월을 보낸 후에
世上 밖으로 나와 허물을 벗고
시원스럽게 올라대는 매미처럼
道伴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구려!”
- 수불 스님의 추천사 중에서

에세이 식으로 잔잔하게 풀어간 글들은 모두 한 곳으로 가 닿는다. 수행이다. 파도소리도 갈매기 울음도 이름모를 허브, 등대도 눈길 닿고 발길 가는 것 모두가 수행과 연관되어 있다.
- 불교신문

서울의 유명 꽃집에 전시된 장미가 아니라 산길에서 마주한 청초한 야생화라고나 할까요. 심지어 선의 지혜로 풀어 쓴 한편의 아름다운 서정시라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스님의 글을 읽다보면 간혹 거금도의 모래밭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겁니다.
- 법보신문

망망한 바다에서 나침반이 있다는 안도감은 방향의 희망을 암시하듯 에세이 <소리>는 인생의 겸허한 나침반이 되고자 한다. 파도소리를 도우(道友) 삼아 세월의 바람에 밀릴한 하심을 띤운다.
- 현대불교신문

이 책에서 "마음이 부처라고 분명하게 믿고 깨달으면 사람마다 부처이므로 생각이나 수행방편, 하는 일이 다르다고 다를 일이 없을 것"이라며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바다를 배우라"고 강조한다.
- 한국경제신문

저자 일선 스님
신국판 양장본
12,000원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736호
전화, (02) 2198-5151 전술(02) 2198-5153